

기(基)

9월, 새로운 시작
기초 다지기, 터잡기

라운아띠 스리랑카팀 8기
기태성 김빛고을 김지현 이재형

- 차례 -

1. 랑카8기 소개

2. 캘린더&일주일 시간표

3. 모라투와 관계망

4. 9월의 활동

4-1.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

4-2. Class 수업

4-3. 커미티 미팅

4-4. Youth club

5. Special story

6. 못다한 이야기



스리랑카팀 8기를

소개합니다!!



이름 : Pathum **빠뎀** (이재형)
meaning: 소망

- # 취미 : 편지쓰기
- # 잘하는 일 : 물통 들기!
힘이 필요한 일마다 솔선수범!

이름 : Sumudu **수무두** (김지현)
meaning: 부드러운

- # 취미 : 남자친구와 영상통화하기
- # 잘하는 일 : 잠! 어디서나 맛깔지게 잠~



이름 : Namal **나말** (기태성)
meaning: 꽃

- # 취미 : 불 켜고 자기
- # 잘하는 일 : 국가대표 서기
꼼꼼하게 회의록 정리하기!



이름 : Himali **히말리** (김빛고을)
meaning: 눈 덮힌 산

- # 취미 : 불 끄고 다니라고 말하기
- # 잘하는 일 : 다른 사람이 남긴 반찬 먹기



9 월, 우리들의 Event Calendar

이리다	상두다	양거하루와다	바다다	브라하스빠띠다	씨꾸라다	세너수라다
						1
2	3	4	5 Sri Lanka 도착!!!!	6 Welcome Ceremony	7 7기 선물 전달	8
9 이웃에게 야채전 돌림 Mr.말린드라 따따 집에 초대받음	10 환전했음☺ 부자 된 듯!	11 Himali 병원行 (알러지)	12 Pathum 몸살	13 Visit Colombo	14	15 숙소에 Wi-fi잡힘
16 방콕! Take a rest	17	18 주인집에서 파파야주심	19 비자연장 Visit Colombo	20 Sumudu Pathum 기타구입 Pathum 금연시작!!	21	22 Visit Zoological Garden
23 시장구경 & Shopping	24	25 Mr.말린드라 따따 Birthday☺	26 목공소 구경	27	28	29 룩시엔의 교회에 초대받음
30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						

시간표 Weekly Timetable

	상두다	양거하루와다	바다다	브라하스빠띤다	씨꾸라다	세너수라다
6:00			콜라켄느 준비			
7:00	아침식사		콜라켄느 나눠주기	아침식사		
8:00						
8:30 - 9:00	YMCA 나무 물주기			YMCA 나무 물주기	Dance Class	
9:00 - 10:00			아침식사			
10:00	싱할라어 Class			싱할라어 Class	Play Badminton	
11:00						
12:00 - 2:00	점심식사 & 휴식 & 수업준비					
3:00	Digorolla Class					
3:30		Tsunami Effected Children Class		Children 태권도 Class		
4:00				Children's Club		
4:30						
5:00						
6:00	저녁식사	콜라켄느 준비	Y member 태권도class	저녁식사	Spoken English Class	
6:30				Korean Class		
7:00						
7:30	Committee Meeting	저녁식사	Youth club		저녁식사	
8:00						
9:00						



‘September’

BANK OF CEYLON

9월의 활동들

Noel

Pathum

Mr. Godfrey

Himali

Sumudu

사진 : Namal



4-1.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

Digorolla Class

국내 훈련을 받았던 아산시

송악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이하 반디)에 보내는 편지



Post Card



To. 반디 홍쌤, 김쌤, 박쌤

선생님. 반디에서 잘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도 여기에서 잘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반디아이들처럼 건강한 디고롤라아이들을 만났어요.

이 마을 친구들은 쓰레기더미위에서 살아서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YMCA에만 오면 뛰어다니기 바빠요. 저희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통제를 하지만, 그럴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해요. 환경이 이렇게 아이들을 만든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기도 하고, 우리도 이런 상황이었던다면 그랬을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도 이 친구들은 저희들을 정말 많이 믿고 따르는것 같아요. 통제가 안될때에도 많지만 활동하는 게임을 할때면 정말 열심히 잘 따라합니다! 그럴때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꼭 반디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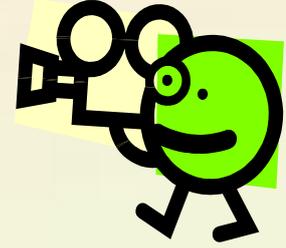
선생님! 반디에서 규칙 만드는것을 보고, 여기에서도 했는데 아이들이 규칙에 서명하자마자 어기더라고요^^: 반디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게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나날이 선생님들을 더욱 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편지할게요~♡

From. 라온아띠 8기 일동

Tsunami Effected Children Class

모라투와통신



<전격! 라온아띠와의 대담>

라온아띠가 지난 9월 17일부터 루나와(Lunawa)지역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루나와 지역은 쓰나미 때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국제 적십자사에서 주거건물을 만들어 주어 당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회적 기업 '아가야'를 넘어 루나와에서도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라온아띠를 루나와 현지에서 만났다.

리포터(생략 리): 라온아띠 역사상 8기가 처음으로 루나와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 루와나에 왔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라온아띠(생략 아띠):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 분들이 몰려 들어서 깜짝 놀랐었죠. 그 곳 사람들은 외국인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공책이며, 손바닥에 계속 우리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써달라고 했어요. 갑자기 사인회가 되었죠. 연예인이 된 것처럼. 하하

리: 집을 송두리째 잃었고, 어떤 아이는 가족을 잃었을 텐데...루나와 아이들을 만나고 난 후,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아띠: (잠시 생각하다가) 사실 저희는 그 곳의 아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가정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저희들의 기우에 불과했어요. 아이들은 역시 순수하고, 맘더라구요. 저희 희망을 봤어요.

리: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미 라온아띠는 많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루나와 수업만이 가진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띠: 모라투와YMCA에서 진행하는 수업과는 다르게 정식 교실이 있고, 이번에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새 책상과 화이트보드도 마련했어요. 확실히 공간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를 정말 선생님처럼 따르니깐요. 수업 집중도와 배우려는 열정이 고마울 만큼 대단해요.

아직 두번의 수업밖에 진행하지 않았다며 인터뷰 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였다. 하지만 인터뷰 말미 마을에 놀이터라도 조그맣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루나와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분량의 관계로, 루나와지역 쓰나미 클래스 사진은 다음페이지에 실는다.



이것으로 모라투와통신
라온아띠와의 대담을 마친다.

Children's Club 설명서

1. 특징_

- YMCA의 모임 중 하나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아이들이다.
우리 활동의 절반은 칠드런스 클럽의 아이들과 만난다.
- 멤버 **야네니**와는 매일 집 가는 골목길 입구에서 만난다!
수무두를 매우 좋아하며 춤을 잘 추고 영어를 잘 한다.
- **아에시**는 배드민턴을 너무 잘한다. 지칠 줄을 모른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 빛을 발한다!
- 디고롤라 아이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라서 그런지 지나치게 활발하다거나 소유욕이 강하진 않다.



2. 주의사항_

- 경쟁하는 게임은 절대로 하지 말 것!
-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을 할 땐 주의할 것!
반드시 다치는 아이가 있다!
- 고가의 물건을 비추지 말 것.
호기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한다.



3. 활동을 위한 Tip!!

- 여자아이들의 참여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 앞에 서게 해야 한다!
- 연령대가 다양하다. 유스 클럽에 가야할 것 같은 아이도 있다.
그 모두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한국어, Spoken English 클래스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실제로 학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 우리 말은 잘 안 들어도 Sampath(Moratuwa YMCA 사무총장)이 하는 말은 신처럼 받들며 따른다.
가끔씩 Sampath을 부르면 수업 집중 효과가 있다.



Spoken English Class

“한국에서나 스리랑카에서나 인기있는 영어수업”

한국 학생들과 같은 점

- 고급반에서 팝송을 배우는데, 역시 좋아한다.
- b,d 그리고 p,q 알파벳을 헛갈려 한다. 봐도 봐도 헛갈린다

한국 학생들과 다른 점

- - 한국 학생들은 읽고, 쓰기가 잘되고 말하기가 안되지만 모라투와 학생들은 말하기가 잘되고, 읽고, 쓰기를 어려워한다.
- - 한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끝나면, 일어서지만 모라투와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끝나도 선생님이 "이워라이(끝났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레벨테스트를 거쳐 애초에는 두 반으로 나누려고 했지만, 최대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에 열 두 명의 학생들을 세 반으로 나누었다.

기초반은 알파벳을 다 모르는 친구들이, 중급반은 단어는 일부 알지만, 문장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고급반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문법 오류가 많은 친구들로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서 가르치기가 한결 수월하다. 우리는 이사회에 건의하여 5개월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모라투와 YMCA 이름으로 수료증을 주기로 했다. 매 수업 출석체크를 하는데, 시작이 좋다.



Korean Class

사람을 찾습니다



- 이름 : 록시엔
- 담당선생님 : NAMAL
- 특징
 - .한국에 관심이 많음
 - .표준어가 아닌, 은어를 많이 알고 있음 (대~박. 님짱! 이런것들?)
 - .수첩엔 인쇄한 한국돈 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음
 - .그의 아버지께선 목사의 신분으로 한국을 많이 방문했다고함
 - .스리랑카 한인들을 조금 알고있음

두명밖에 없는 한국어클래스에서 없어선 안될 학생이므로, 위 사람을 보시면 즉시 연락바랍니다.
-라온아띠 8기-

사람을 찾습니다



- 이름 : 프리비샤
- 담당선생님 : SUMUDU
- 특징
 - .한국드라마때문에 한국어 배우고 싶어함
 - .2주만에 한글을 외우고 읽고 쓸 줄아는 영재임
 - .한국어를 배우는데 아주 열정적임
 - .약간 수줍음이 있긴하지만 한국어로 대화를 시키면 아주잘함
 - .5개월동안 스리랑카의 한국어교사로 만들 예정임

스리랑카에서 지속가능한 한국어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학생이므로, 위 사람을 보시면 즉시 연락바랍니다.
-라온아띠 8기-

Taekwondo Class

태권도클래스(칠드런 클럽)

상영중

2012

네타즌평점 **★★★★★ 9.30** | 전문가평점 **★★★★★ 7.27**

개요 교육/스리랑카/60분/2012.9.14개봉/매주 금요일 3시30분 상영
감독 배똘 스텝 니말(연출전문 쿠데리감독) / 히말리(촬영회를 올림감독) / 수무두(음향스틱 스텝트감독)

출연 칠드런클럽 아이들 [더보기](#)

등급 4세이상 17세이하만 관람 및 참석가능



예매하기

원작소셜

공식사이트

★ 북마크 | 미루 934 | 보내기



주요정보

배우/제작진

포토

동영상

평점/리뷰

상영시간표

명대사/연관영화

줄거리

라온아띠 7기활동에서는 없었던 태권도 클래스가 새로 개설되었다.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한국에서 도복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이 감독은 막막했다. 다행히도 라온아띠방을 뒤져 전 기수가 쓰던 하의에 갈색 페인트가 묻은 한 벌의 도복을 찾아내 수업을 하는 구색을 겨우 갖추었다.

그렇게 시작된 태권도 클래스는 첫 수업에는 2명이 참석했다.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아이들은 태권무를 만들어서 칠드런클럽에 홍보를 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미약했으나, 현재는 10여명의 인원이 모이고 수업은 이어지는데...

top

4-4. Youth Club

Moratuwa YMCA의 유스 클럽은 18세 이상부터, 심지어 부부가 함께 오기도 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 7시 반에 모여 게임, 강의,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Moratuwa YMCA의 특징은 음주문화 없이도 청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라온아띠는 한 차례 게임을 진행했고, 앞으로 3주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이다. 유스 클럽에는 영어가 능숙치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중간 통역은 필수다.

2주차에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 Namal은 “라온아띠 진행의 첫 시작을 맡았기에 부담이 되기도 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실전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10월 3째주에는 라온아띠와 함께 ‘End Poverty’에 관련하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라온아띠 인턴 기사 -



5. Special story - 1

> 09월 09일, 말린드라 따따 집에 초대받았어요!

따따 집에 있는 총으로 사격놀이도 하고, 마당 옆 연못도 구경하고, 고양이랑도 놀았어요. 스리랑카 대표 스포츠 크리켓도 함께 하고, 따따 아이들과 종이접기도 함께 했어요. 암마한테 요리도 배우고, 함께 점심도 먹었지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스뚜디 따따~~



> 09월 25일, 말린드라 따따 생일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스케줄을 마치고 따따집에 가서 생일파티를 즐겼어요. 간단한 음주와 맛있는 암마의 저녁요리까지~ 저희가 아산에 있을 때, 자주 갔던 저수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평화로웠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밤이었답니다.

저희는 따따 생일선물로 벨트를 준비했어요.

(소근소근. 이거 사려고 저번주말에 쇼핑을 했는데 아니 글썄, 저희 팀은 남자들이 쇼핑을 더 좋아하는거 있죠? ㅋㅋ.)



Special story - 2

09월 29일 Roshen 집에 초대받다!

칠드런스 클럽의 멤버인 로시엔은 수줍음이 많지만 영어를 매우 잘 하고, 한국어와 태권도 클래스를 모두 들어서 우리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잠시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도 음악에 관심이 많고 집에 기타, 키보드 드럼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마음에,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운 Poya Day(휴일)로 약속을 잡았지요. 그리고 당일 아침 로시엔은 우리를 위해 YMCA까지 먼 길을 나와 주었습니다(우리에게 모라투와를 떠나는 일은 엄청난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도착해서 알게 되었지만... 로시엔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마침 우리가 교회에 도착한 시간이 아이들의 예배시간이어서, Himali가 진행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로시엔은 Namal과 함께 키보드로 음악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Sumudu와 Pathum 에게는 기타 주법을 알려 주며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 주었어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교회 선생님을 맡은 누나, 로시엔과 기타 연주를 함께하는 형, 그리고 드럼 연주를 맡은 귀여운 동생, 교회의 목사님이자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항상 웃음이 가득하신 아버지 그리고 뛰어난 음식 솜씨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아이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집에 직접 가게 되니 느낌이 새로웠는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했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Special story - 3

두 번의 콜롬보 여행기

첫 번째 방문 <9월 13일 / 바쁜 하루>

콜롬보 뱅크 오브 실론, 칠드런 파크, 인디펜던스 홀, 콜롬보 YMCA, NCY를 하루에 다 둘러 보았어요. 이날 우리는 뱅크 오브 실론의 28층에 올라가 콜롬보 전망을 보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대통령 사저가 보여서 아무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갓프리 아저씨 덕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스페셜로 타밀식을 먹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칠드런 파크에서는 많은 연인들이 우산을 쓰고 (비도 안오는데..)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문 <9월 19일 / 깜짝 놀란 날>

비자 갱신을 하기 위해 콜롬보에 갔어요. 사람들도 많고, 버스도 여러 번 갈아타서 녹초가 되어있었죠. 수완드라 아저씨가 비자를 도와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곳 저 곳 사무실로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더니 난처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Visiting 비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Tourism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죠. Headquarter까지 만나서 한 소리를 듣고, 수완드라 아저씨의 삼촌(장관) 백을 써서 2개월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었죠. 수완드라 아저씨가 고을이에게 너만 비자통과를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하도 진지하게 말해서 속아버렸죠. 다들 가슴이 철렁했죠.



Special story - 4

Zoological Garden

동물원 방문기

우리는 동물원에 가기 전부터 엄청난 환상이 있었어요.

왜냐구요? 커미티 미팅에서 동물원 다녀오는 시간을 정하는데, 혹시 코끼리 쇼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모든 분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코끼리 쇼가 어떻길래? 저희는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22일 토요일!!
우리는 Mr. 말린드라 따따 가족들과 함께 동물원으로 떠났습니다!

스리랑카의 동물원은 매우 넓고, 자연이 어우러진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둘러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동물들을 보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귀여운 낙타도 보고, 말하는 앵무새, 독수리, 다양한 종류의 새와 원숭이까지... 주위의 모든게 신기했어요!



>> 빼뚱은 동물과 대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니 오랑우탄이 나무를 타고 건너와 반갑게 인사를 하네요^_^



그리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코끼리까지! 스리랑카 사람들은 코끼리를 좋아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코끼리 그림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동물원에서도 역시 많은 코끼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위해 코끼리를 직접 만지며 사진을 찍게 해주고, 목욕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코끼리 쇼! 코끼리들이 작은 나무의자 위에 서 있기도 하고, 또 의자에 앉는 게 신기하죠? 왜 그토록 코끼리 쇼를 이야기 했는지.. 그때 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6. 못다한 이야기

기타구입

09월 20일, 기타의 '기'도 모르는 빼뚱과 수무두. 기타를 구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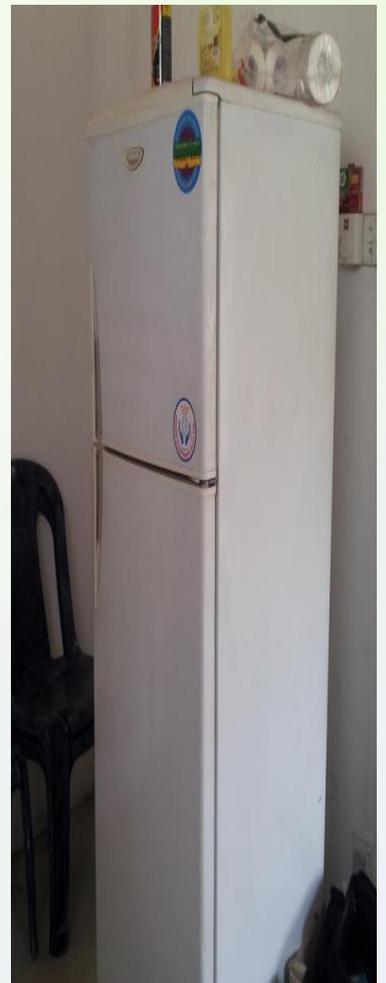


폼은 좀 그럴싸한가요? 우리는 기타를 현지에서 사면 싸다는 소식을 접하고 Youth club 멤버 수데시의 도움으로 기타를 사러갔는데, 오잉? Made in Korea 제품이 있네요. '삼익기타'를 수무두는 약 9만원, 빼뚱은 약 11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현재 열심히 독학중입니다!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우리의 냉장고는 우리가 처음 스리랑카에 왔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냉장실 한 쪽만 작동이 안 되는데다, 나중엔 엄청난 굉음을 내며 우리의 회의와 휴식을 방해하기에 이르렀어요. 또한 음식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냉장고에 상한 야채 냄새가 진동하고, 문을 한번 열 때마다 온 집안에 냄새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봐야 할 장을, 먹을 만큼만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서 사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 우리는 코디네이터인 노엘에게 부탁했는데, 알아보니 상당히 심각한 고장이었다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큰 냉장고를 내리고, 대체용으로 다른 냉장고를 올렸습니다. Namal과 Pathum이, 하필이면 제일 더운 날에 앞집 목공소 아저씨들과 힘을 합해서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려니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고했어요!



뽕뚱, 그리고 나말 머리카락을 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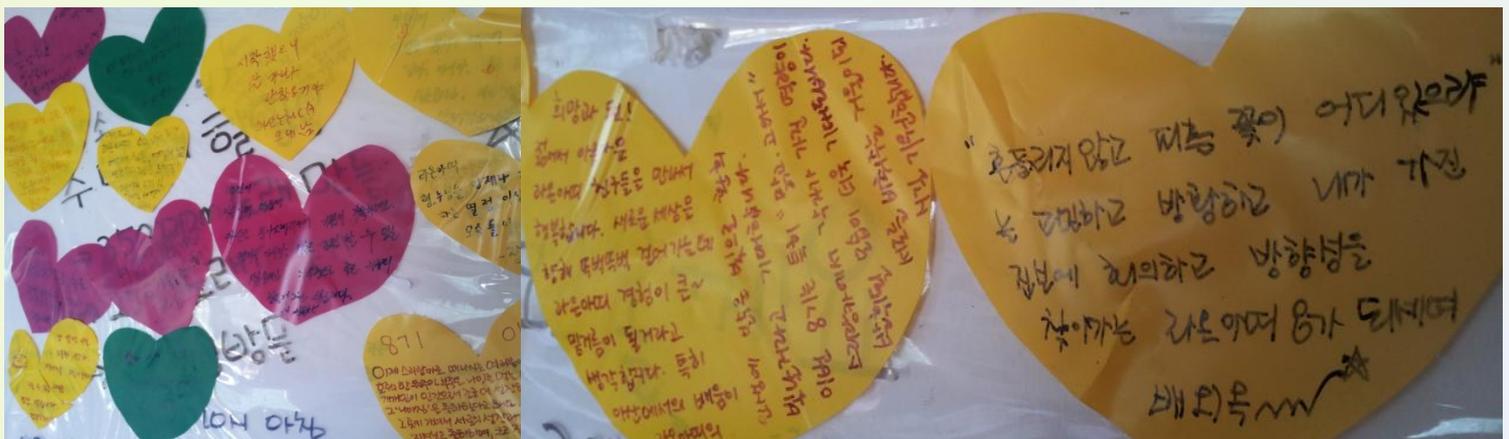
9월 16일 일요일...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그렇게 좀이 썩시던 우리 아띠들은 무료하던 어떻게하면 좀 더 알차게 보낼까 고민고민하느라 너무 많이 자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평소 잡생각을 많이하고 고민이 많은 뽕뚱은 마음을 먹었죠.
“머리를 밀어야겠다!!!”

그렇게 다른 아띠들에게 선언을 하고 모두 같이 이발소로 갔습니다.
뽕뚱의 머리는 뽀뽀, 아주 시원하게 밀려나갔고 구경하던 나말도 머리를 정리할까 말까하다가 그냥 깎아버렸습니다. 나말의 머리는 아주 귀엽게 되었는데, 뽕뚱의 머리는 여자아띠들이 징그럽다고 했어요.ㅠ_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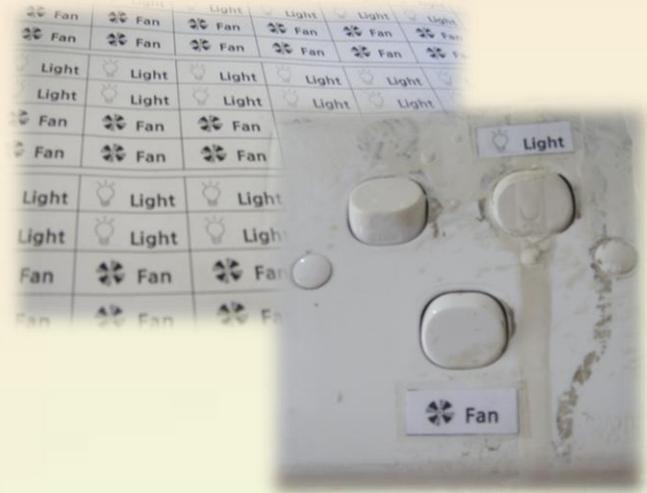


보고싶은 사람들

아산에서 '최후의 만찬'때 선생님, 선배 라온아띠들에게 받은 하트 쪽지를 집에 꾸며놓았어요. 지칠 때마다 글 속에 담긴 격려와 응원을 듬뿍 받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도 많고요.



나의 효과, 나비 효과



폐신문지 그냥 버리지 않고
디고롤라 아이들과 수업시간에
We are the one 모자이크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스위치 때문에
전기가 낭비되는 것이 아까워
우리집, Y건물 스위치있는 곳마다
어떤 스위치 인지 다 붙여 놓았답니다^^

나의 효과 나비 효과! 나의 밥그릇효과! 살이 찌던 말던
우리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 빈그릇 운동을
실천합니다!! (사실 맛있어서 다 먹는다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비닐봉지를 쓰지 않기 위해 저희는 항상 장바구니를 사용하구요
랑카팀이 점심 사먹는 747레스토랑에서 항상 종이, 비닐봉지에 밥을
담아주곤 했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60루피짜리 개인밥통을 따로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09월 월별보고서를 마치며 ...

Pathum : 난 원래 무슨 일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뛰어들고 될대로 되라는 식이었다. 머리 아픈 일이 싫고 즉흥적인 것이 좋아서 준비, 계획 같은 건 언제나 남의 일이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많은 지금은 많은 것이 낯설다. 하지만 이 라온아띠 생활이 수영을 배우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바닷물을 콧구멍으로 어푸어푸 들이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걸 배우고 있는 거라고...

SUMUDU: 수무두라는 이름으로 이 곳에서 지내게 된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고, 행복이었다. 앞으로 여기에서 있을 4개월 동안의 시간이 너무나 기대된다.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 덥다고 짜증내는 날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불평도 감사할 따름이다. 😊
아참, 나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다! 히힛.

Namal : 한국 아이들과는 다른 스리랑카 아이들. 수업시간에는 말을 듣지 않는 장난꾸러기일지라도, 그들의 꼼꼼함과 부지런함을 보고 배울 점이 많다. 이곳에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교육을 여기서 원없이 해보고 있다. ‘과연 내가, 정말로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Himali : 나에게서는 선물 같은 시간이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나는 이 곳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법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늘 그렇듯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면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